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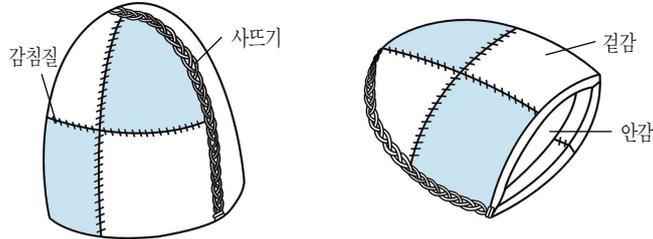
# 제3주 골무 만들기

## □ 금주 학습활동

금주의 주요 학습활동(토론, 과제, 퀴즈 등)을 잊지 않도록 작성해주세요.

### 골무 만들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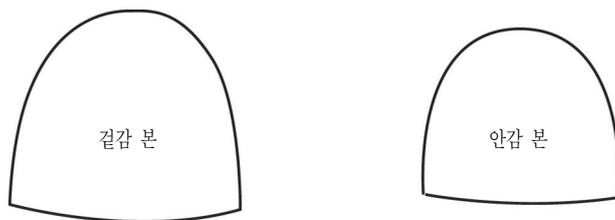
골무는 손바느질에 반드시 필요한 용구로서 바늘이 들어가기 힘든 옷감이나 감침질 또는 누비 등 바늘에 힘을 주어 바느질할 때 손끝이 바늘에 찢리는 것을 막아 주었다.



골무형태

#### ① 준비물

- 겉감(5cm×5cm) 2장, 배접지(3cm×7cm) 1장, 광목(3cm×6cm) 1장, 사뜨기용 실, 나무봉, 문방포.



골무본(실제 크기)

■ 배접지 만들기 ■

배접은 천과 천 사이에 한지를 붙이는 것으로 얇은 천에 힘을 받쳐 주거나 모양새를 갖추게 하는 등 심(芯)의 역할을 한다. 배접지는 골무나 바늘집, 가위집, 안경집 등을 만들 때 사용하며, 그 밖에 악세사리를 만들거나 수를 놓을 때 천이 너무 얇으면 배접을 하기도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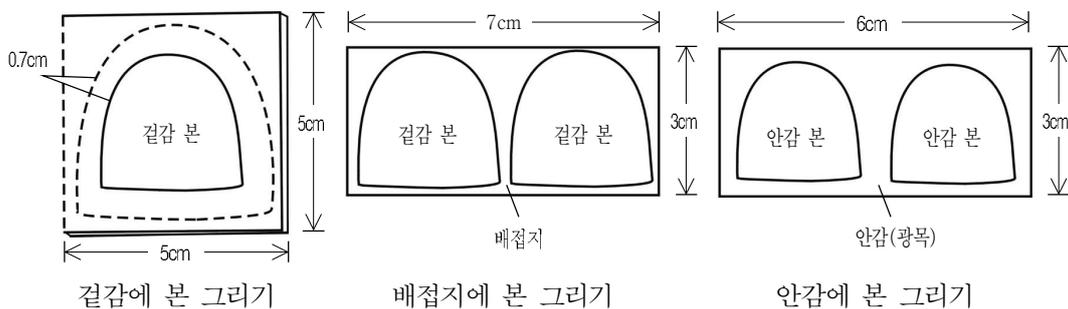
【준비물】

- 광목, 한지, 찹쌀풀, 칼, 유리판(식탁유리 등 사용).
- ① 8절 크기 정도로 한지와 광목을 재단한다.
- ② 광목을 물에 적신 후 유리판에 판판히 펴놓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 낸 후, 풀을 고루 펴 바른다.
- ③ 한지 한 장을 올려 풀칠한 광목 위에 붙인다. 광목과 한지를 붙이면 살살 두드리면서 공기를 빼야 나중에 울퉁불퉁하지 않으며, 중간에 공기가 생기면 핀이나 바늘로 찔러 공기를 빼낼 수 있다.
- ④ 이러한 방법으로 광목+풀+한지+풀+광목+풀+한지+풀+광목+풀+한지 순으로 배접한다. 광목의 두께에 따라 두꺼우면 3번, 얇으면 4번 반복하여 원하는 두께로 배접한다.
- ⑤ 두꺼운 책 등으로 눌러 응달에서 일주일 정도 말린 다음 사용한다.

② 만들기

㉠ 본 그리기와 천 자르기

- 겹감과 배접지에 겹감 본을 앞, 뒤판용으로 각 2장씩 그린다. 겹감에는 시접을 0.7cm 정도 주고 자르고, 배접지는 본대로 시접 없이 잘라 놓는다. 이때 배접지가 딱딱하면 젖은 수건에 싸서 놓아 두었다가 사용한다.
- 안감(광목)에 안감 본을 2장 그리고 시접 없이 자른다.



㉡ 겹감에 배접지 붙이기

- 겹감(앞뒤 2장) 전체에 풀을 칠한 후 배접지를 가운데 놓고 붙인다. 시접 둘레를 각이 지지 않게 접어 넣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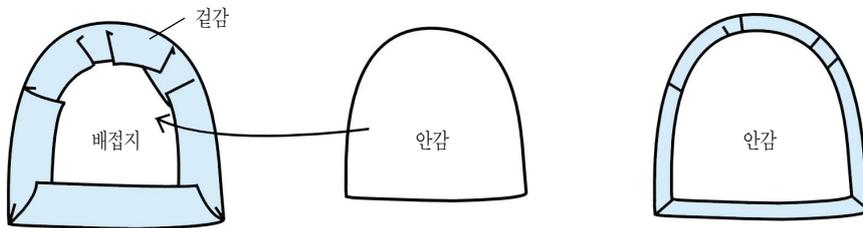
### 3주 골무 만들기



겉감에 배접지 붙이기

#### ㉔ 안감 붙이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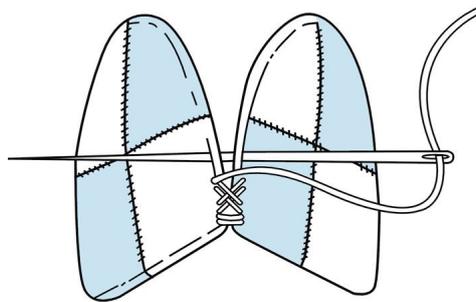
- 시접이 접혀 들어간 안쪽에 안감을 붙여 마무리한다.



안감 붙이기

#### ㉕ 사뜨기(귀잡치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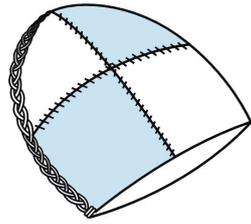
- 완성된 앞, 뒤판의 안을 마주 대고 사뜨기를 하여 합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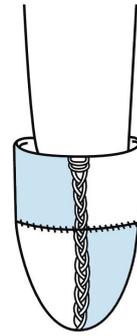
사뜨기

#### ㉖ 모양 잡기

- 손가락 모양의 나무봉을 골무 속에 넣고 꺾꺾 눌러 가며 모양을 예쁘게 정리한다.



완성된 모양



모양 잡기

이미석 저(2005). 『우리규방문화와 침선소품』 pp.91~95, 116~117를 참조하여 조선시대 골무의 여러 가지 형태와 용도, 지방마다 다른 골무의 재밋는 명칭 등을 알아본다.

김정호·이미석 저(2004). 『천연염색과 규방공예』 p.154를 참조하여 경상도 골무를 만들어본다.